

【붙임 2】

문화재 누림 가족 수학여행지 32선 안내자료

<부산광역시>

□ 부산 :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바다와 산을 만나다

- 여로 : 태종대(광장~태종사~등대~전망대~자갈마당~광장)-(동삼동 패총)-중식-범어사
- 안내 : 부산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태종대(명승 제17호)는 기암괴석과 숲이 어우러진 해식절벽을 가리킨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해식절벽이 너무 아름다워 자살 충동마저 일으켰는지 자살바위가 있을 정도이다. 가히 신선이 살았을 법하여 신선대라고 불렸던 이곳이 태종대로 불리게 된 것은 전설에 따르면 이곳이 신라 태종 무열왕의 활쏘기 터였던 때문이다. 주변엔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있어 이 지역이 선사시대 이래 사람들이 살아온 터전임을 알 수 있다.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경남의 3대 사찰로 신라 문무왕 때 의상 대사가 화엄경의 이상향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산문을 활짝 열어 부산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범어사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가 가지는 의미를 새겨 보면 좋을 것이다. 경내에는 등나무 군생지(천연기념물 제176호)가 있다.



부산 태종대(명승 제17호)

<인천광역시>

□ 강화도 : 단군왕검에서 근대 유적까지 역사가 숨 쉬는 섬 여행

- 여로 : 전등사 - 점심 - 광성보
- 안내 : 전등사는 삼랑성 안에 자리하고 있어 단군왕검의 전설과 고구려의 불교와 고려의 강화도 시절, 조선 말 병인양요의 전란을 함께 겪었다. 전등사 대웅전(보물 제178호), 전등사 범종(보물 제393호) 등의 유물과 복원된 정족산 사고가 있는 역사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진 곳이다. 광성보(사적 제227호)는 강화해협을 지키는 자연 지형이 험한 요새로 강화 12진보의 하나이다. 광성보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로

천도한 후에 돌과 흙을 섞어 해협을 따라 길게 쌓은 외성이며, 1871년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신미양요 때 전사한 어재연 장군 형제의 쌍충비와 약 50여 명의 순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신미순의총이 있다.



강화 광성보(사적 제227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보물 제178호)

<울산광역시>

□ 울산 :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고래와 선사인들의 터전이었던 울산

- 여로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중식(언양)-간절곶(또는 장생포고래박물관)
- 안내 : 울산에는 선사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고래를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암각화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이 그것이다. 암각화까지 가는 길도 경관이 뛰어난 트레킹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온가족의 즐겁고 의미 있는 역사문화 기행이 될 것이다. 나오는 길에 불고기로 유명한 언양에서 점심을 먹고, 포항 호미곶 보다는 1분 먼저 해가 뜬다는 간절곶에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써 본다면 그 자체로 설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경기도>

□ 수원화성 : 정조의 개혁과 실학 정신이 빛나는 수원화성

- 여로 : 장안문-화서문-동장대(연무대)-화성열차-점심-화성행궁

- 안내 : 수원화성(사적 제3호)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기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계획·제도·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재료의 출처 및 용도·예산 및 임금계산·시공기계·재료가공법·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수원화성 소장 문화유산으로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공심돈(보물 제1710호), 화성행궁(사적 제478호) 등이 있다.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원화성(사적 제3호)



수원화성 방화수류정(보물 제1709호)

□ 여주 : 강을 내려다보는 고찰 신륵사와 대왕 세종을 만나는 기행

- 여로 : 신륵사 - 점심 - 세종영릉
- 안내 : 신륵사는 신라 때 세워졌다고 하며, 고려 우왕 2년 (1376년)에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한 절이 되었다. 절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보제존자 석종·석종비·석종 앞 석등, 다층전탑, 다층석탑, 조사당 등 많은 유물·유적들이 있다. 질푸른 빛의 여강이 절 바로 아래로 휘감아 흐르는 모습이 아름답다. 영릉(사적 제195호)은 조선조 제4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합장릉이다. 세종대왕릉 옆으로 효종의 영릉이 소나무 숲에 쌓여 있다.



신륵사 강월헌 아래 여강



여주 세종대왕릉(영릉)(사적 제195호)

□ **연천 : 아슐리안 주먹도끼로 구석기 역사를 새로 쓴 전곡리와 고구려 성**

- 여로 : 전곡리 선사유적지 - 점심 - 호로그루성
- 안내 : 전곡리 선사유적지(사적 제268호)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유적지이다. 한탄강이 흐르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1978년 주먹도끼와 가로날 도끼 등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됨으로써 세계 구석기학 연구에서 지역 구분의 개념이 달라졌다.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 내에는 선사박물관을 비롯하여 넓은 잔디밭에 전시된 구석기 시대에 관한 모형들이 있다. 호로그루성(사적 제467호)은 당포성(사적 제468호)과 은대리성과 함께 고구려의 남쪽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성이다. 호로그루성 위에 올라가면 임진강이 바로 발밑에 흐르는데 이곳이 임진강 중에서 수심이 가장 낮은 곳이라 배를 타지 않고도 건널 수 있었으며, 평양과 개성, 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한 성이었다.



연천 호로그루성(사적 제467호)과 임진강



전곡리 선사유적지(사적 제268호) 모형

<강원도>

□ **삼척 : 석회암 동굴의 매력과 관동팔경이 어우러지는 도시**

- 여로 : 환선굴 - 점심 - 죽서루 - 증산해변
- 안내 : 삼척대이리동굴지대의(천연기념물 제178호) 환선굴은 화려한 종유석을 관람하면서 자연의 신비와 오묘함을 체험할 수 있고, 석회동굴의 생성과 성장, 퇴화의 과정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또 환선굴에는 붉은박쥐 등 24종의 동굴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삼척 죽서루(보물 제213호)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조선시대에 증축한 것으로 '관동 제1루'라는 명성에 걸맞게 삼척 오십천(명승 제58호)을 내려다보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증산해변은 삼척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해변이다. 수심이 얕아 남녀노소 누구나 수영을 즐길 수 있고 해변을 산책하기에 좋다. 또한 일출로 유명한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와 가까워 촛대바위를 한눈에 감상할 수도 있다.



삼척 환선굴(중유폭포)(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죽서루(보물 제213호)

□ **평창** : 전나무 숲을 걸어 상원사 종소리를 들으러 가는 길

○ **여로** : 오대산 월정사 - 상원사 - 점심 - 대관령 삼양목장(또는 양떼목장)

○ **안내** : 월정사는 오대산 동쪽 계곡의 사철 푸른 침엽수림과 맑고 푸른 금강연 물줄기가 어울려 고즈넉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월정사는 신라시대부터 1,400여 년을 이어온 고찰로 불교의 진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상원사는 월정사의 말사이지만, 제법 규모가 큰 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인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이 있다. 대관령은 고산지대로 대규모 목장이 있는 곳으로, 삼양목장에는 젓소·한우·양·타조·토끼 등을 방목한다. 풍경 또한 봄의 꽃, 여름의 숲,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을 고루 감상할 수 있으며, 동해 전망대에서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월정사 9층석탑(국보 제48호)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

□ **강릉** : 울곡 이이를 만나고, 푸른 동해를 마주하는 기행

○ **여로** : 오죽헌 - 선교장 - 점심 - 경포 해변

○ **안내** : 오죽헌(보물 제165호)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범이 되는 신사임당의 집이자 아들 울곡 이이 선생이 태어나 자란 곳이기도 하다. 신사임당의 단아한 품성과 자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위대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이이 선생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선교장(중요민속문화재 제5호)은 조선말기의 전형적인 사대부의 저택으로 안채, 사랑

채(열화당), 별당(동별당, 서별당), 정각(활래정), 행랑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후기의 주거생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경포해변은 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고, 겨울에는 해돋이 감상객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주변의 참소리 박물관을 찾아보거나 경포호 주변에서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도 있다.



강릉 오죽헌(보물 제165호)



강릉 선교장(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 춘천 : 마음속의 휴식처 같은 호반의 도시 춘천

○ 여로 : 청평사 - 점심 - 남이섬

○ 안내 : 청평사 고려선원(명승 제70호)은 소양호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가거나 차로 갈 수도 있다. 청평사 계곡의 구성폭포는 아홉 가지 소리를 낸다고 한다. 청평사에는 고려정원 영지, 청평사 회전문(보물164호), 삼층석탑 등이 있다. 남이섬은 북한강 청평호에 그림같이 떠있는 섬으로, 조선조 세조 때 역적으로 몰려 28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남이 장군의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메타세콰이어, 밤나무, 포플러 같은 나무들이 울창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으며, 섬 중간에는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느긋하게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놀이를 할 수도 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청평사 회전문(보물 제164호)

<충청북도>

□ 청주 : 고려 금속활자의 우수성과 호연지기의 성 상당산성

- 여로 : 청주 고인쇄박물관 - 중식 - 상당산성 한 바퀴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 안내 :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가 고려라는 것을 입증한 책이 《직지심체요절》이다.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를 찍은 곳이 바로 청주 흥덕사이다. 청주 기행은 이 직지를 찍었던 흥덕사 자리에 세워진 직지박물관에서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마한시대 이래 청주를 지켜온 상당산성에서 산성을 한 바퀴 걸어보면서 가족들만의 즐거운 한때를 가져본다.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충주 : 삼한 최초의 고갯길 계립령(하늘재)을 넘어 중원 미륵리 사지로

- 여로 : 덕주사 마애불 - 중원 미륵리 사지 석불 - 중식 - 계립령과 도예촌(또는 송추계곡 생태 탐방로)
- 안내 :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오는 최초의 고갯길이 바로 계립령로 하늘재(명승 제49호)이다. 이후 조령, 추풍령 등에 밀려 옛길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이 길을 걸어 과거를 보러 가거나 소식을 전하러 가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은 가족들끼리 걷기 편한 산책길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려 때 대원(大院)이 있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의 역할도 하였던 이 길 끝에는 미륵리 석불과 인공석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특이하게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미륵석불을 보며, 나라를 빼앗긴 채 금강산으로 떠나던 신라 마의태자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 보는 기행이다.



북향하고 있는 미륵석불(보물 제96호)



충주 미륵리사지 오층석탑(보물 제95호)

□ 단양 : 고구려 온달 장군의 기상과 단양 8경을 가슴에 담아 보는 길

- 여로 : 온달산성과 온달동굴 - 중식 - 고구려 세트장 - 장희나루 유람선 타고 돌아보는 단양 8경
- 안내 : 온달산성(사적 제264호)은 남한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구려 관련 유적지이다. 삼국시대에 단양은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가까운 충주에는 중원 고구려비가 있고, 적성에는 신라 적성비가 있다. 온달 유적지에서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를 새겨본다. 온달산성에서 내려다보는 굽이치는 소백 연봉과 새과란 하늘은 모두의 가슴을 시원하게 띄워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양에서는 4,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바로 석회암 동굴! 그중 아기자기한 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을 체험하고, 장희나루에서 배를 타고 아름다운 단양 8경을 관람하는 즐거운 여행이다.



단양 온달산성(사적 제264호)



단양 8경 옥순봉

□ 괴산 : 화양서원과 화양구곡을 걸으며 옛날 선비가 되어 봐요.

- 여로 : 화양서원과 만동묘 - 중식 - 화양구곡(다채로운 문화 체험 미션 수행)
- 안내 : 화양서원은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을 제향하기 위해 그 후학들이 세운 서원이다. 송시열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두 차례나 침범한 청을 끝까지 부정하고 명을 존명하였던 인물이자, 조선 후기를 당쟁으로 치닫게 하였던 인물이다. 화양서원에서 서원의 의미를 공부하고, 조선 후기 당쟁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 더불어 화양구곡 길을 산책하며 일상을 떠나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 공주 : 시련의 웅진 백제 시대

- 여로 : 무령왕릉 - 공주박물관 - 점심 - 공산성
- 안내 :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13호)의 7번째로 발굴한 고분으로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능이다. 무령왕릉은 백제의 활발한 국제관계와 문화를 잘 보여준다. 당시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유행한 벽돌무덤인데다 일본의 금송으로 관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제관식·금제뒤꽂이·금제 귀걸이·지석·석수·청동신수경 등을 포함하여 충

2,906점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문주왕 때 웅진(공주)의 공산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공산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성이지만, 북쪽으로 금강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어주는 군사적 요지로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성이다.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무령왕릉 석수(국보 제162호)

□ 부여 : 백제 중흥의 꿈이 금동용봉대향로에!

- 여로 : 정림사지 - 부여박물관 - 점심 - 부소산성 - (고란사 ~ 구드레나루)
- 안내 : 성왕은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부여)로 옮겼다.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오층석탑은 백제문화의 절제되고 단아하며 세련된 멋을 잘 드러내 준다. 부여박물관에서는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절터에서 발견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의 화려하며 우아한 백제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부소산성(사적 제5호)은 사비성을 지키는 성으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백마강이 흘러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삼충사(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5호)와 낙화암(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0호)과 고란사(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98호) 등에서 백제의 패망을 안타까워하는 전설을 되새겨 볼 수 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 서산 : 아담한 해미읍성과 서산 마애불을 만나는 여행

- 여로 : 해미읍성 - 중식 - 개심사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서산 마애불)
- 안내 : 읍성은 지방 행정 관청이 있는 마을에 들어서며,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함께 갖는다. 해미읍성(사적116호)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읍성으로는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성이다. 또한 우리나라 천주교의 성지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유적이다. 개심사는 작고 아담한 절이지만 주변의 숲과 기암괴석, 봄의 벚꽃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개심사의 대웅보전(보물 제143호)은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산 마애여래삼존상(국보84호)은 태안반도를 거쳐 백제의 수도 부여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마애불의 잔잔한 미소는 '백제의 미소'로 일컬어지며, 찬란하게 꽃피웠던 백제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서산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

□ 아산 : 민속마을에서 옛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기행

- 여로 : 아산 외암 민속마을 - 점심 - 온양 민속박물관
- 안내 : 외암 민속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은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밑에 자리하고 있다. 외암 민속마을에는 약 5백 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한 예안 이씨 일가가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다. 마을의 돌담을 모두 이으면 약 5km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을의 이끼 낀 돌담은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참판 댁과 영암 군수 댁(건재 가옥, 중요민속문화재 제233호)처럼 돌담 너머로 집집마다 아름다운 뜰과 집 구조를 볼 수 있다. 마을 입구에는 장승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초가지붕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밖에 많은 민속 유물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아산 외암 민속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온양 민속박물관의 석상

<전라북도>

□ 전주 : 우리의 맛과 멋, 소리, 한옥을 흥겹게 체험해 보는 옛 도시 기행

- 여로 : 전주 향교 - 이목대와 오목대 - 경기전 - 중식 - 객사 - 한지 체험
- 안내 : 전주는 후백제의 역사뿐 아니라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서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고도(古都)이다. 우리나라 향교 중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조선 태조 어진을 모신 경기전(사적 339호) 또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의 고장이자, 한지, 한옥 그리고 전주비빔밥 등 한식의 고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주 기행은 조선 역사를 배우고 한옥, 한식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운 기행이 될 것이다.



경기전 정전(보물 제1578호)

□ 부안 : 살아 있는 지층 박물관이자 아름다운 바닷길이 있는 부안 기행

- 여로 : 변산 마실길 1구간 3코스(성천 - 적벽강 - 수성당 - 채석강 - 격포) - 중식 - 내소사
- 안내 : 부안 하면 떠오르는 채석강(명승 제13호).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강물에 비친 달을 따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채석강 만큼 아름다워 '채석강'이라 했다지만 채석강을 비롯하여 변산 바다는 아름다운 경치와 훌륭한 자연학습장이 되어 준다. 켜켜이 책을 쌓아놓은 것 같은 지층과 습곡 현상, 해식애와 파식대 등 그 자체가 지구과학교과서인 셈이다. 그 아름다운 바닷길을 따라 조성된 마실 길을 가족들과 함께 거닐어 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안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로, 단청과 꽃창살문으로 유명한 내소사(전라북도 기념물 제78호)에서 단아한 절집의 정취를 마음에 담아본다.



변산 채석강(명승 제13호)

□ 고창 :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고인들의 땅으로 간다

- 여로 : 고창읍성 - 신재효 고택 및 판소리 박물관 - 증식 - 고창 고인돌
- 안내 :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돌성인 고창 읍성(사적 제145호)은 조선 시대의 읍성으로 그 모습이 잘 보존된 성이다. 동·서·북 세 곳의 문과 치 6곳, 옹성 그리고 수구 문 2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창읍성은 성 밝기 풍습이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성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돌며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는 것이다. 고창은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군으로도 유명하다.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고인돌군은 누리객들을 타임머신에 태워 홀썩 청동기 시대로 안내해 준다.



고창 죽림지 지석묘군(사적 제391호)



고창읍성(사적 제145호)

□ 익산·김제 : 무한히 펼쳐진 지평선과 백제 무왕의 땅

- 여로 : 미륵사지와 탑 - (망해사)증식 - 김제 벽골제와 벽골제 박물관
- 안내 : 백제 무왕은 백제 중흥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그 꿈의 한가운데 미륵사와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석탑(국보 제11호)이 우뚝 솟아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은 서(西) 탑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어찌 돌로 저렇게 웅장하게 쌓을 수 있었을까 감탄하게 만든다. 익산 부근의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는 삼한의 농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은 김제평야의 아름다움을 한없이 느끼게 하여 준다.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전라남도>

□ 순천 : 가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도시 순천

- 여로 : 선암사 - 낙안 읍성 - 중식 - 순천만(순천만 자연생태 공원~철새도래지 걷기)
- 안내 :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다고 정평이 나 있는 곳이 순천이다.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는 선암사(사적 제507호)는 아름다운 절집으로 순조의 탄생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선암사 홍매화(천연기념물 제488호)와 승선교(보물 제400호)가 아닐까? 무지개다리만큼 아름다운 계곡 길을 걸어 나와 낙안읍성(사적 제302호)에 이르면 순천의 옛 모습도 만만치 않게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다. 지금도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읍성이다. 순천의 명승은 무궁하다. 마지막으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면 순천만(명승 제41호)일 것이다. 국내 최대의 갈대 군락지이자 연안습지인 순천만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곳으로 황홀한 해넘이로도 유명하다.



선암사 승선교(보물 제400호)



순천만(명승 제41호)

□ 담양 :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다!

- 여로 : 소쇄원 - 관방제림 - 중식 - 죽녹원
- 안내 : 중국, 일본과 달리 자연 그대로의 경치를 빌려 정원으로 삼았던 조선인들 ! 이른바 차경(借景)이란 조경원리에 따라 지어진 소쇄원(명승 제40호)의 정갈한 정원에서는 마음이 스스로 산책을 한다. 광풍루에 앉아 시원한 휴식을 취하고 난 뒤 만나는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366호)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청청한 기를 마실 수 있다. 국내 유일의 푸조나무 군락지이기도 한 이곳의 나무 숲길은 제림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것으로도 아쉬움이 있다면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댓잎의 연주를 들으며 진한 휴식을 취해 보면 좋을 것이다.



소쇄원(명승 제40호)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366호)

□ 구례 : 한국의 어머니산 지리산과 섬진강이 빚어낸 고장 구례

- 여로 1) 화엄사 - 지리산반달가슴곰 생태체험장(화엄사 계곡길 걷기) - 중식 - 섬진강변 꽃길
- 여로 2) 화엄사 - 화엄사 계곡길 걷기 - 중식 - 동편제 전수관 (판소리 체험관)
- 안내 : 구례에 가면 세 가지 큰 것을 볼 수 있다. 지리산, 섬진강 그리고 그들이 품어 빚어낸 너른 들판이 그것이다. 지리산이 품은 큰절 화엄사(사적 제500호)은 여느 절과 달리 화엄경에 따라 지어진 절집이라 가람 배치도 태극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우람한 기둥이 감탄을 자아내는 각황전(국보 제67호)을 마주하게 되면 감동이 배가된다. 구례는 봄이면 피어나는 산수유와 벚꽃길이 장관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무리지어 한들거리는 꽃길의 정취도 만날 수 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가슴에도 꽃물이 드는 여행이 구례에는 있다. 화엄사 일원의 산림은 명승 제64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화엄사 각황전 (국보 제67호)

□ 진도 : 진도아리랑을 따라가는 예향의 고장 진도

- 여로 : 남도석성 - 세방낙조 전망대 - 중식 - 진도 소포 남도소리 체험(진도 북춤 공연 ~ 남도 소리; 진도아리랑, 육자박이, 흥타령, 사물장단)
- 안내 : 진도는 진돗개(천연기념물 제53호)로 유명하지만 나라 지키기에 목숨을 다했던 호국의 땅이자 남도 소리의 땅으로도 유명하다. 진도로 들어가는 길목의 진도대교는 울돌목으로 명량대첩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용장성(사적 제126호)·남도진성

(사적 제127호)을 비롯해 고려 때 몽골에 맞서 삼별초가 저항했던 유적지도 역사를 이해하는 뜻 깊은 장소이다. 이러한 호국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낙조전망대인 세방낙조로 향한다. 낙조를 보면 더욱 황홀하겠지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광경 자체가 일상에 지친 이들의 숨을 틔워줄 것이다.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진도 소리도 배워본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낙천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노래 가락들, 그 가락에 몸을 부리고 노랫말을 경청하며 남도 소리 한 자락을 배워본다.



세방 낙조(진도군청 자료)

<경상북도>

□ 안동 : 조선 선비의 대표 고장 안동의 고택과 서원에서 조선의 선비 체험

- 여로 : 안동 하회마을 - 중식 - 탈춤공연 - 병산서원
- 안내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은 조선시대 양반마을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600년대부터 풍산 류씨들이 모여 집과 서원을 짓고 모여 살았던 집성촌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진당(보물 제306호), 충효당(보물 제414호), 북촌댁(중요민속문화재 제84호)과 남촌댁(중요민속문화재 제90호) 그리고 서애 류성룡을 모신 병산서원(사적 제260호)은 한국의 전통 건축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낙동강이 에스자(S)를 이루며 마을을 감싸고 흐르고 만송정 숲(천연기념물 제473호)이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안동기행은 한옥 담을 따라 걷는 골목길의 정취를 만끽하며 조선의 선비 류성룡을 만나고, 마을 마당에서 벌어지는 별신굿 탈놀이(중요민속문화재 제69호)를 보며 절로어깨를 들썩여 보는 여유로운 기행이 될 것이다.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 영주 :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바라보는 소백연봉이 극락정토

○ 여로 : 부석사 - 중식 - 소수서원과 선비촌

○ 안내 : 태백산의 마지막 종착지인 봉황산 중턱에 자리 잡은 부석사는 특히 해거름에 무량수전 앞에 서면 멀리 끝없이 펼쳐진 소백의 연봉이 붉게 젖어 들고, 누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절이다. 동시에 무한한 생명과 광명을 지닌 아미타불이 미소 짓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극락임을 실감하게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다음으로 오래된 건축물로 공민왕 때 왜구의 침입으로 불에 탄 것을 우왕 2년(1376년)에 중수한 것이다. 봄이면 산수유와 사과 꽃이 휘날리고 가을이면 은행잎이 노랗게 길을 안내하는 부석사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사적 제55호)에 들러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해보는 기행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부석사 안양루



소수서원 전경(사적 제55호)

□ 경주 : 경주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국보가 가득한 천년 고도

○ 여로 : 석굴암 - 불국사 - 중식 - 문무대왕릉과 감포 - 감은사지

○ 안내 : 석굴암(국보 제24호)과 불국사(사적 제502호)는 삼국을 통일하고 불국토를 현실에서 이루어내고자 한 신라인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불교 유적지이다. 하지만 석굴암 본존불 앞에 서면 종교를 떠나 경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으며, 철저히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조성된 본존불과 인공석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성이 전생의 어머니를 위하여 석불사를 지었고 현세의 어머니를 위하여 불국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불국사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토함산을 떠나 동해 감포로 가는 길은 그 자체가 여유로운 여행길이다. 감포 바다에서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 하였던 문무왕의 정신을 되새겨보며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천년을 거슬러 신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불국사 연화교·칠보교(국보 제22호)



감은사지(사적 제31호) 동서 3층 석탑(국보 제112호)

□ 문경 : 청운의 꿈을 안고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 문경새재

- 여로 : 새재 제1관문(주흘관) -드라마 세트장-제2관문(조곡관)-중식-옛길 박물관-문경 레일 바이크
- 안내 : 문경새재(명승 제32호)는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영남대로 옛길이다. 이 길에는 선비들의 과거에 급제하는 청운의 꿈이, 민초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다. 하늘재(명승 제49호)와 이화령(이우릿재) 사이의 길이라 하여 새재, 새로 난 길이라 새재, 역새가 우거졌다 하여 새재, 새도 날아 넘어가기 힘든 고개라 하여 새재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새재'라 불렸는데, 단순히 과거길로서만이 아니라 국방상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조령원 터, 교귀정 등 유적지를 옛 선비가 된 기분으로 돌아보고, 석탄이 많이 나던 문경의 옛 철로를 이용하여 조성한 철로 자전거를 타고 썩썩 달려 보면 좋을 것이다.



문경새재 조령관문 일원(경상북도 기념물 제18호)

<경상남도>

□ 김해 : 잊힌 가야의 역사를 찾아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분군으로 떠나다

- 여로 : 구지봉과 수로왕릉 - 봉황동 폐총 전시관 - 중식 - 대성동 고분 박물관
- 안내 : 김해는 1세기에서 6세기에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고대 왕국 가야의 주요 유적지들이 산재한다.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사적 제73호)이 왕비로 맞은 허황옥의 고향인 인도 아유타국 용왕을 표시하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채색된 신어문양의 납릉정문(納陵正門)이 독특하고, 원형 봉토분도 주위를 압도한다. 대성동 고분군(사

적 제341호)은 발굴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무덤을 발견하였고, 발굴을 통해 김해가 금관가야의 중심지였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다.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지 못했지만 질 좋은 철을 생산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가야의 독특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기행이 될 것이다.



김해 수로왕릉(사적 제73호)



김해 대성동 고분5군(사적 제341호)

□ 통영 : 불멸의 이순신 유적지와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항

○ 여로 : 한산도 제승당 - 거북선 관람 - 중식 - 삼도수군통제영관아와 세병관 - 미륵산 케이블카(또는 옷칠미술관)

* 유람선 9,000원, 유적지 입장료 1,200원, 옷칠박물관 2,000원, 케이블카 9,000원

○ 안내 :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산양일주도로에서 바라보는 바닷가,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해안선은 그림 같다. 또한 통영은 이순신 장군 승전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산섬 제승당에서 한산대첩의 의미를 새겨보고, 삼도수군통제영(사적 제402호) 관아·세병관(국보 제305호)에서 이순신의 고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영의 나전칠기의 고장, 문학과 미술, 음악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기에 통영은 어떤 각도에서 기행을 해도 즐거운 도시이다.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제승당)(사적 제113호)